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서울시도 힘 보탠다

NEWS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전남도와 세계섬박람회 공동마케팅·관광 활성화 협약 아라뱃길 따라 서울~여수 연안크루즈 운항 비전 등 제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서울시가 힘을 보탠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와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섬 관광 활성화, 주요 행사 사전 공동 마케팅 등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관 (주)YC-TEC 회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협약식에 이어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비전과 대한민국 섬 정책에서

의 전남의 역할, 미래 해양관광 중심지로서의 섬의 가치 등을 발표했다.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 개최로 전남을 세계 섬의 수도로,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 도시로 이끌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섬이 가진 고유한 향토 문화와 전통을 이어 미래 해양산업과 관광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섬의 중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과 여수, 물길을 이어 미래로 가다'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잠실에서 여의도를 경유해 미국 선착장까지 운항하는 한강버스는 새로운 교통 경로를 선사하고, 향후 아라뱃길을 따라 서해항로를 통해 여수까지 연안 크루즈를 운항, 서울과 여수의 물길을 이어 미래로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아라뱃길을 따라 서울과 여수를 잇는 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은 전남도에서 야심차게 추진중인 섬과 섬을 잇는 '섬섬곡곡 연안크루즈 시범 운영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강에서 출발해 여수로 이어지는 특별한 크루즈 노선은 여수세계섬박람회 흥행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섬의 다양한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면서 세계의 섬을 품고 미래를 향해 서울시와 함께 나아가겠다"며 "한강에서 출발해 목포, 제주, 여수로 이어지는 크루즈 노선은 관광객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한눈에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읍 진도지구와 여수세계박람회장, 남면 금오도, 화정면 개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관 조직위원장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서울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작년 전남 수산물 생산액 3조5000억... 1인당 1억꼴

생산량 감소 불구 김 수출 증가·참조기 등 고가 어종 늘어

전남도는 지난해 수산물 생산액이 지난해보다 4171억 늘어난 3조5298억원을 기록, 2024년 지역 어업인 수(3만 3272명)를 감안하면 1인당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국가통계포털(KOSIS) 어업생산동향 집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2.5% 줄었고, 생산액은 13.4% 늘었다. 생산량이 줄었으나 오히려 생산액이 늘어난 것은 김 수출 증가에 따른 물김 산지 가격 상승과 참조기 등 일부 고가 어종의

어획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어업별 생산실적은 양식어업은 전년보다 4522억 증가한 2조2572억원(170만6336t), 어선어업은 594억 감소한 9129억원(14만312t), 내수면어업은 243억 증가한 3597억원(1만5261t)이다. 품목별로 어류는 전년보다 511억 증가한 1조3081억원(13만810t), 패류는 949억 감소한 6203억원(12만7770t), 해조류는 4620억 증가한 1조11891억원(156만5563t), 갑각류는 204억원 증가한 2094억원(2만7084t), 이 외 기타 수산물은 215억 감소한 229억원

(1만682t)이다.

품종별로는 전년보다 4403억 증가한 9588억원(42만7138t), 미역은 93억 증가한 908억원(55만1616t), 전복은 493억 감소한 4864억원(2만3357t), 첫 새우는 130억 증가한 703억원(1만4597t), 뱀장어는 262억 증가한 3385억원(1만6377t)으로 집계됐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4년 수산물 생산현황 자료를 분석해 고소득 품종을 추가로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산 발전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전남 어업인이 흘린 땀이 좋은 결실을 보는 돈 버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광주시, 1인가구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

자치구·가족센터 대상 17일까지 신청...우수사업 지원

광주시가 자치구별 인구특성에 맞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 발굴에 나섰다.

광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자치구와 가족센터 등을 대상으로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인 'Solo Together(솔로 투게더)' 세부사업 신청을 받는다.

광주지역 1인가구는 지난 2023년 통계청 기준 22만8970가구로, 전체 가구(62만7602가구)의 36.5%에 달한다.

시는 매년 급증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자치구별 1인가구 인구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17일까지 자치구와 가족센터 등으로부터 세부사업 신청을 받아 우수사업을 심사,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1인가구 특성과 사업으로 예산 1억4000만원을 투입, 5개 자치구와 6개 세부사업을 시행했다.

동구는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밀반찬, 제철요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서구는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제과제빵, 정리수납 교육, 영양음식 제공 등을 지원했다.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요리, 신체활동, 안전, 재무교육 등 청장년층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남구는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호신용품 등을 지원했다. 또, 취약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요리교실도 열었다.

북구는 취약위거지역(산단 원룸촌) 중

장년 1인가구에 상담, 정리·수납서비스, 요리, 집수리교실 등을 지원했다.

광산구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소통·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주거환경 개선교육부터 봉사활동, 호신술, 사회진입 삽 설계 등을 실시했다.

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 등 솔루션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7개 과정도 진행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1인가구 증가 원인은 비혼·이혼·사별, 가족생활·주거패턴 등 원인과 형태가 다양한 만큼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보다는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세심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부터 노년까지 인구특성별로 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촘촘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도, 민선8기 투자유치 30조 조기 달성 논의

기업지원 강화방안 등 모색

전남도는 7일 22개 시군 투자유치 부서장을 포함한 60여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도·시군 투자유치 부서장 회의'를 열어 민선8기 투자유치 30조 조기 달성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2025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추진계획 △투자 인센티브 개선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안전 △ 새로운 지역 투자방식인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안내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군은 동·서부권 균형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중점업종 설정 등 지역 맞춤형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 인센티브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참석자

들은 보조금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2024년부터 시행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도 관계자는 "전남도가 기업 투자 최적지로 자리 잡도록 시군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며 "기업 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종기 여수섬박람회 조직위 사무총장 취임

"섬박람회 성공 개최 온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김종기 전 여수시 부시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조직위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사무총장

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모·선정했다.

김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박람회 종료까지며, 조직위를 총괄해 섬박람회 행사 전반을 이끌 예정이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38년여간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 장성군 등에서 정책기획, 투자유치, 관광홍보 등 주요 업무를 수행했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섬박람회 성공개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직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더욱 특별하고 품격 있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

HOTEL 아트하임

VIP CLUB 무기명회원 모집

상담문의 062.415.7330

혜택	Vvip 1천만 (3년)	Vip 4백만 (1년)
숙박	연40박 (한시적), 추가 숙박시 주중 30% 주말 20%	
조식	숙박시 조식 2인 무료(연 36매) 추가 증정	
사우나	무료 사용	
피트니스	무료 사용	
커피숍	커피 50% 할인, 기타음료 20% 할인	
골프대회	그린피 무료, 시상식, 연 1회	
컨퍼런스룸	연 10회, 1회 타임 3시간 무료 사용	
연회장	10% 할인	
웰니스프로그램	전문의 초청 건강세미나 연 2회	
광남일보	기업탐방 및 오피니언 리더 특집기사 연 2회 전문 이미지 광고	
	광남아카데미 초청 강연 연 10회 (석식제공, 사전예약)	
	광주시내버스 내부 모니터(버스 1대당 모니터 2대) 20대 12개월 / 50대 4개월 / 100대 2개월	
광주버스 방송	3년 3회 제공 (4,800만원 상당)	1년 1회 제공 (1,600만원 상당)
월간지전라도인	3년 무료구독	1년 무료구독

(주) 호텔아트하임 멤버십 클럽은 지역정문지 "광남일보" 종합광고대행사 "에드하임"이 함께합니다.

★ 대면회장(150명) / 소면회장(30명) /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운영

HOTEL 아트하임 (주·별첨리뷰호텔)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예약문의 062)236-5881